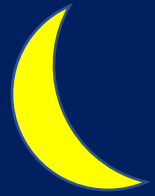


## 인사 말씀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1886~1942). 교과서 등을 통해 그가 지은 시의 선렬한 이미지와 리듬에 충격을 받은 분도 많을 것입니다. 사쿠타로는 세타가야에 지은 집에서 말년을 보낸 후, 여기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문학관에서는 2011년에 하기와라 사쿠타로전을 개최했으며, 사후 80년이 되는 올해 일본 전국을 횡단하며 개최되는 ‘하기와라 사쿠타로 대전 2022’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불세출의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작 “달에게 짓다”의 서문에 ‘사람은 혼자서는 영원히 영원히 무섭도록 고독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인 사쿠타로는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곳이 없어 책과 음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한 소년기부터 고향을 떠난 도쿄에서의 가정생활이 붕괴되어 다시 귀향해야 했던 청년기까지, 사쿠타로의 삶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따라다닙니다. 40대 후반에 집을 지은 세타가야에서 마침내 다른 사람과 교제를 즐기게 되는 한편, 자신의 고독한 경험을 근대 일본과 근대시의 발걸음에 투영한 수많은 에세이와 평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사쿠타로의 생애와 남겨진 자료, 그리고 그 고독한 세계를 새로운 형태로 표현한 현대 아티스트들의 작품 등을 한 권의 ‘책’을 읽듯이 더듬어 갑니다. 앞의 인용구절에 이어서 사쿠타로는 인간 사이에 공통되는 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제 영원히 고독하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책도 또한, 고독한 독서를 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쓸쓸하고 위대한 시인, 사쿠타로의 시와 말을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큰 도움을 주신 물과 녹음과 시의 도시 마에바시 문학관, 출품해주신 작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의 온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공익재단법인 세타가야문화재단 세타가야 문학관